



만다라의 원력으로 다시 서는 진언 밀교

대전 만보사 양계 만다라 및 득락전 봉안 가지불사 봉행



▲ 만보사 양계 만다라 및 득락전 봉안 가지불사

불교충지중 충청·전라교구의 중심 사찰인 대전 만보사 양계 만다라 및 본존 봉안 가지불사와 득락전 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불사가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만보사 서원당에서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과 교도 약 500여 명이 동참한 이번 불사는 1부 득락전 봉안 가지불사와 2부 양계 만다라 및 본존 봉안 가지불사로 진행되었다.

교정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1부 득락전 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불사는 효강 종령 예하, 법등 통리원장, 수현 중앙 종의회 의장, 화령 중앙교육원장, 법상인 사감원장, 환수원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승원 만보사 주교, 민순분 만보사 신정회장의 아미타 삼존불 제막으로 시작되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만보사 득락전 아미타 삼존불 봉안 비밀가사의례를 봉행하고, 충지중 정통 의례에 따른 불사가 진행되었다.

이어 봉행된 만보사 양계만다라 및 본존 봉안 가지불사는 사회부장 지정 정사의 사회와 광주 법방사 주교 도현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 법등 통리원장, 전국 교구장 및 신정회 지회장 등 중단 주요 인사

가 동참하여 달라이 라마 존자가 친필 축원한 양계 만다라와 본존의 제막식 테이프를 끊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가을 하늘의 푸르름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세상이 만다라의 세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봉안 되는 만보사 양계 만다라를 통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 수행은 법신의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밀교의 특별한 도상이자 상징입니다.”며 “만다라 봉안은 통해 만보사 교도님들의 소구 소원과 즉신 성불의 진언 수행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라며 만다라 봉안으로 만보사의 교화 발전이 원만하기를 서원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에서 “오늘 양계 만다라 봉안과 득락전 봉안 가지불사에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참석해 주신 동참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봉안되는 양계 만다라가 진언 밀교 수행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동참해 주신 스승 및 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만보사 신정회 민순분 회장은 발원문에서 “오늘 봉안하는 양계 만다라와 득락전 삼존불이 오래 보전되어 좋은 환경과 인

연자들이 모여 만보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서원합니다.”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교도들과 함께 하기를 서원했다.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는 인사말에서 “만보사 교도들은 오늘의 불사에 앞서 세가지를 서원 세웠습니다. 「첫째 모두가 동참하자, 둘째 단순히 외형적 장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근기를 높이는 좋은 수행의 방법으로 삼자, 셋째 어느 한 두 사람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성취하자」였습니다. 오늘 불사의 마무리를 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묵묵히 수행 정진으로 동참한 만보사 교도들과 전국에서 남몰래 도와주신 스승님, 교도님 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며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도와주신 인연 대중들께 인사를 드렸다.

만보사 합향단의 축가를 끝으로 네발의 만다라학교 카르상 라마가 조성하고 달라이 라마 존자가 친필 축원한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의 양계 만다라의 봉안과 득락전 아미타 삼존불의 봉안 가지불사는 원만히 회향 하였다.

만보사=유복근 통신원



▲ 총기 42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웅'에서 봉행된 제3회 통일음악예술제

마음의 평화를 통한 화합 그리고 소통

10월 25일 제4회 불교충지중 통일음악제 봉행, 부산 KBS홀에서

제4회 불교충지중 통일 음악 예술제가 10월 25일 부산 KBS홀에서 봉행 된다. “마음의 평화를 통한 화합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힐링 음악회를 마련했다. 올해 우리 국민들은 유난히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 그만큼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평화의 메시지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불교 충지중은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힐링 음악회를 마련했다.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지난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개최된 제3회 공연에 이어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제4회 불교충지중 통일음악예술제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올 한해는 전 국민이 아픔을 함께한 사건들이 많은 해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슬픔을 이기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전국의 교도님들과 불자님들을 초대 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를 수지하시기를 서원 합니다

다.”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불교 충지중 전국합창단과 국제적인 힐링 명상 음악가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부산시민, 불교계 주요 귀

빈,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이 동참할 예정으로 천상의 화음으로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서원한다.

김종열 기자

지면안내

- 1면 제4회 통일음악 예술제
- 3면 대자행 지수 49재 봉행
포항선립사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봉행
- 5면 환당대종사 입적 20주기
기념 특별법문
- 6면 교아산 탐방기(2)
- 7면 서울시 추천 단풍길
- 11면 영화에서 불교보기
(나그네와 미술사)

새로운 중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제84회 추계강공회

교화와 중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의 스승님들께서는 수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시 | 개강식 총기 43년 10월 14일(화)

회향식 총기 43년 10월 17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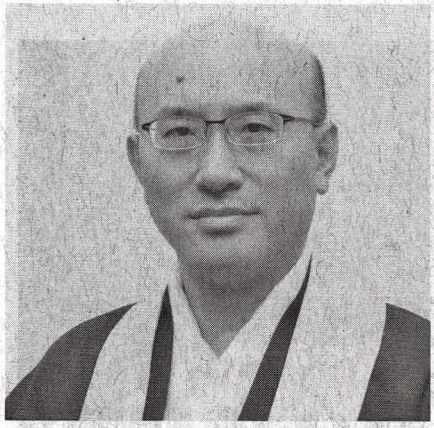
1장 소 | 불교충지중 통리원

1대 상 | 중단산하 전 스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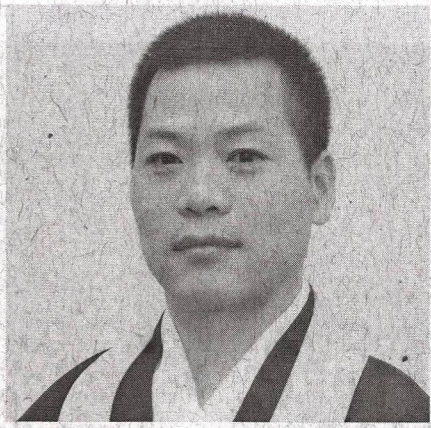
◎ 불교충지중 종령 효강



신임 법장원 연구원 겸 중앙교육원 교수에 원당 정사, 법일 정사 임명



▲ 원당 정사



▲ 법일 정사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원장 화령 정사)은 9월 18일 신임 법장원 연구원 겸 중앙교육원 교수에 밀인사 주교 원당 정사와 벽동사 주교 법일 정사를 임명하였다.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원당 정사와 법일 정사가 법장원 연구원 겸 중앙교육원 교수로 임명되어 보다 체계적인 스승 교육의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상 연구와 함께 앞으로 스승 재교육 프로그램과 시무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며 이번 임명의 의의를 설명했다. 법장원=배공주 기자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학교발전을 이루자

종립동해중학교 제47주년 기념식

종립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제 47주년 개교기념식이 9월 25일 오후 2시 학교 해오름관에서 봉행되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 정사, 이사 인선 정사, 정각사 주교 록경 정사, 법선 동해사 주교, 고은아 학교 운영위원장 및 각 학년 어머니회 회장, 이광호 동창회 홍보이사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다. 이사장 지성정사는 축사에서 “지역 명문사학 동해중학교가 벌써 설립 4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배출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사회 각층의 지도자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의 중추적인 사학으로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의 동량을 키워나가는데 한층 더 매진합시다.”며 개교를 축하했다. 탁상달 교장선생은 기념사에서 “지금의 동해중학교가 있기 까지는 학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선배들의 훌륭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선생님들

과 학생들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역사와 전통을 이어 나갑니다.”며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0년 근속 교사로 김광무, 하봉걸 선생님이 기념패와 선물을 증정 받았다. 학교법인 관음학사는 성적우수 장학생 1-1 최현준, 2-3 이종민, 2-5 배승준, 3-5 박영빈, 3-7 신동혁 군 등에게 총지종 장학금을 수여했다. 동해중학교=김재근 선생님

포레스트 어린이집 현황 지도 방문

9월 26일 통리원장, 재무부장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 어린이집 원생들과 인사하는 법등 통리원장

9월 25일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산하 포레스트 어린이집(원장 손재순)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통리원 집행부 현황 방문을 실시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와 재무부장 우인 정사는 황하성 원장의 안내로 시설 및 교육 현황을 보고받았다. 법등 통리원장은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유아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포레스트 어린이 집은 서울시 청계산로 11길 7-12 포레스트 7단지에 지난 2013년 11월 8일에 개원하였다. 총4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0세에서 3세 까지의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총 42명의 원생과 총 9명의 선생님이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김태원 교무

종단의 어른으로 염송 수행의 모범이 되자

총기 43년 기로스승 전통사찰 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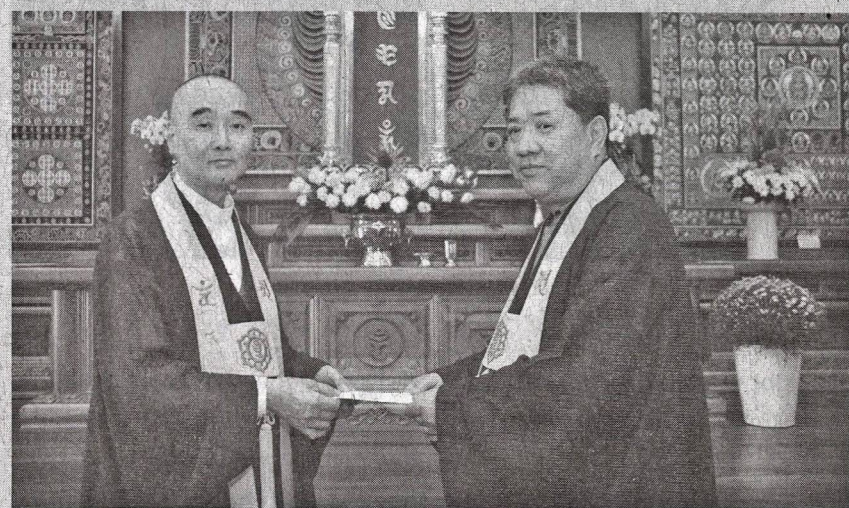
▲ 화순 운주사 참배를 마친 기로스승

총지종 기로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9월 16일 스물여덟 분의 기로 스승들은 부산 정각사에서 건화사 주교 법상 정사와

단음사 주교 도우 정사의 안내로 2박 3일간 전라남도 전통 사찰 관불을 떠났다. 담양 소재원과 메타쉐콰이어 길을 둘러보고 도고 가족 온천랜드에서 첫날밤

을 묵었다. 둘째날에는 천불 천탑의 화순 운주사를 참배하고, 달마산 미황사를 참배했다. 장흥 안단체리조트에 여장을 풀기 로 스승들은 한자리에 모여 종단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기로 스승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교화의 방편들과 종단 운영의 경험들을 발표하고, 종단의 발전과 승단의 화합을 위한 방편들을 현지 스승들에게 전하기로 하였다. 관불의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장흥 보림사를 참배하고 종단의 발전과 화합을 부처님전 서원했다. 기로 스승들은 앞으로도 종단의 어른으로 모범적인 진언 수행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인교구 사회복지기금 전달



▲ 서울·경인교구 사회복지기금 전달식

서울·경인교구장 법우 정사는 9월 22일 총지사에서 교구 스승들이 조성한 사회복지기금을 통리원장 법등정사에게 전달했다. 교구장 법우정사는 “서울·경인교구 스승님들이 교구 회의 때마다 조금씩 조성한 기금을 종단 사회복지기금으로 회사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통리원장님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종단 사회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인간방선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기금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가을 총지종 종단 행사에 적극 동참기로

서울·경인 신정회 합동 회의 개최

서울·경인 신정회 지회(지회장 김은숙)는 9월 17일 백룡사에서 합동 회의를 가졌다. 김은숙 회장을 비롯한 서울·경인 각 사원 신정회장 및 간부 1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공식 중인 신정회 지회의 부회장에 총지종 박정희 보살과 손경옥 보살을 추천 임명하였다. 또한 감사에는 이연수 보살과 이타심 보살을 추천 임명하고 총기 43년 가을 살림을 논의 하였다.

지회는 오는 10월 25일 부산 KBS홀에서 열리는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에 적극

공고히 하기로 다짐했다. 총지사=이인성 통신원

총지정보 창간 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불교총지종 통리원
· 발행인 : 구법등 | 편집인 : 구법등 | 편집장 : 김종열
· 편집국 (02)552-1080 | 팩스 (02)552-1082
· 구독 및 광고 문의 (02)552-10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강순시	9/15	10,000
	무명씨	9/16	20,000
관성사	박현숙	9/2	10,000
	인선	9/22	20,000
관음사	신막심	9/11	10,000
기로	대관	9/22	10,000
	밀공정	9/22	10,000
	법수원	9/22	10,000
	법장화	9/22	10,000
	법지원	9/22	10,000
	불멸심	9/22	10,000
	사홍화	9/22	10,000
	상지화	9/22	10,000
	수중원	9/22	10,000
	총지화	9/22	10,000
	선도원	9/22	10,000
	반야회	9/23	200,000
단음사	법연지	9/16	10,000
만보사	정덕순	9/2	10,000
벽룡사	양정현	9/6	10,000
	양지현	9/6	10,000
삼밀사	백승엽	9/15	50,000
서울경인교구		9/18	1,447,500

선립사	심지장	9/18	10,000
수인사	정순득	9/15	10,000
승천사	원봉	9/18	10,000
	지선행	9/18	10,000
실지사	정우석	9/18	10,000
운천사	무명씨	9/22	1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9/1	10,000
	천소영	9/12	10,000
	권향덕	9/25	10,000
	유수경	9/25	10,000
	이준동	9/25	10,000
	김지연	9/25	10,000
	강경화	9/25	10,000
정각사	정희연	9/12	20,000
	탁상달	9/15	20,000
정심사	원정연	9/18	20,000
지인사	승효제	9/18	10,000
	지성	9/18	10,000
초록어린이집			
	오현주	9/1	10,000
	이지은	9/1	10,000
	황화성	9/25	30,000

총지사	법등	9/12	30,000
	손경옥	9/20	15,921
혜정사	최영례	9/22	10,000
홍곡사	지정	9/18	20,000
사원무기명			
	무명씨	9/12	10,000
	하명숙	9/15	10,000
	김갑선	9/19	10,000

8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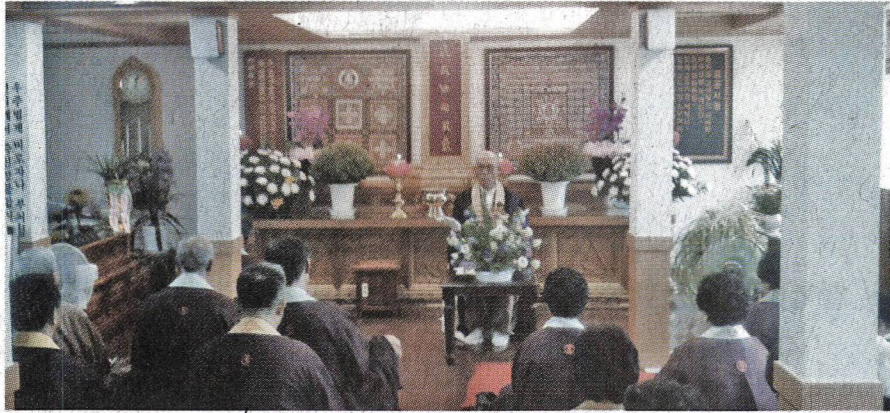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문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포항 선립사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봉행

대구·경북 교구 주관으로 9월 12일 봉행



▲ 선립사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대구·경북교구 포항 선립사(주교 심지장 전수)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가 9월 12일 봉행됐다. 안성 정사(대구·경북 교구장, 수인사 주교)의 집공과 우인 정사(재무부장, 개천사 주교)의 사회로 봉행된 불사에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대구·

경북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양계 만다라는 밀교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선립사에 모신 태장, 금강 만다라 수행에 전념 하시어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처적주

입처개전의 정신으로 누구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수행에 임한다면 대비만행의 큰 서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며 만다라 봉안 가지불사의 원력이 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서원했다.

선립사 주교 심지장 전수는 봉행사에서 “오늘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에 참석 해주신 효강 종령 예하 및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립사 만다라 봉안을 계기로 교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서원합니다.”며 만다라 봉안으로 다시 한번 진언 염송의 불꽃이 일기를 서원했다.

포항 선립사 양계 만다라 봉안으로 총지종의 입교개종과 함께 시작된 포항 지역 교화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기를 서원한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총본사 총지사에서 대자행 지수 49재 봉행



▲ 추선사를 봉독하는 연등원 전수

지난 8월 19일 열반에 든 대자행 지수의 49재가 10월 6일 법등 통리원장의 집공으로 총지사에서 봉행되었다.

기로스승을 비롯한 전국의 스승들이 동참한 대자행 지수의 49재는 불교 총지종 정통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훈향정공에 이어 대자행 지수의 제자인 기로스승 연등원 전수가 “열반슬픔 더한 중에 어언 49재라 생멸없는 적광토에 상부하여 계시오니 인세인연 맺었을 때 은혜지중 하온지라 제자의 도리로서 추선불사 짓사오니 존령 맑게 살피소서 길이 추복 하옵니다.”며 추선사를 봉독했다.

경북 달성 출신인 대자행 지수는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같이한 초대 원로 스승들 중 한분이다. 창종 원년 12월 29일 부모 청주 선교부 주교로 임명되어 정통밀교 총지종 교화의 문을 열었다. 불교 총지종 재단법인 초대이사, 종령자문위원, 응신서원당 주교, 중앙종의회 의장을 거쳐 1990년 기로원에 진원하였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실지사 교도들의 자발적 원력으로

휴게시설 테라스 완공



▲ 실지사 마당에 조성된 교도 휴게 시설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실지사(주교 법우 정사)는 각자들의 원력으로 교도 휴게시설 테라스를 완공하였다.

오는 10월 17일 한공불사를 앞둔 실지사는 각자들의 신행 모임인 “부림회”를 중심으로 사원 환경미화가 한창이다.

특히 김해승 각자, 연화심 총무 보살 부부와 이명환 각자, 대도신 총무 보살 부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한낮의 햇살을 맞으며 테라스 공사를 주도 했다.

이들 부부들은 손수 방부목 자재를 구매하고, 일주일 간 공사를 진행하여, 실지사 교도들이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라스를 완공하였다. 또한 야외 테이블 두 개와 파라솔 및 조경수를 김해승 각자 부부가 보시했다.

실지사는 교도간의 단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로 소문난 사원이다. 오늘도 교도들은 한공불사와 본존 및 만다라 봉안 가지불사가 원만이 이루어지기를 한마음으로 서원하고 있다

실지사=홍정숙 통신원

천상의 화음으로 교화에 앞장서다

5월 17일 마산 운천사 합창단 창단



▲ 마산 운천사 합창단

총지종 마산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가 지난 5월 17일 합창단을 창단하였다. 총 27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운천사 합창단은 단장에 이해주 보살, 총무에 한경림 보살이 임명되었다.

합창단은 매주 수, 토요일 운천사에서

정기 연습을 한다. 지휘를 맡은 박건우 선생은 부경대학교와 대구 교육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부산문화재단 대중음악 예술가, 한국문화예술 진흥회 연예예술 분과위원장, 마산 부림 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고 “다이나믹 부산”, “그리운 교향”등

100여곡을 작사, 작곡한 실력과 덕망을 갖춘 음악가이다. 반주에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으로 수석 졸업을 한 박수진 선생이 맡아 합창단의 화음을 이끌어 나간다.

합창단 단장 이해주 보살은 “비록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는 합창단이지만, 그 어떤 합창단 보다도 열정이 넘칩니다.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 총지종을 대표하는 최고의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단 교도들과 스승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운천사 합창단의 창단으로 부산 만다라, 대구 금강, 서울 마니 등 연합합창단과 대전 만보사의 사원 합창단이 전국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범음을 전하고 있다.

마산 운천사=김삼연, 고지현, 이수연 통신원

부산·경남 통신원 소식

정각원 스승님 유택 참배

부산·경남 교구는 9월 11일 부산·경남 교구의 큰 스승이신 고(故) 정각원 스승님의 유택을 참배하였다. 법선

정사의 집공으로 교구 스승 18명이 동참한 추선법회는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 침체된 교화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다짐하기 위한 자리였다. 동참 스승들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진언 염송의 참된 진리를 전수해 주시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교도들이 아픔을 어루

만져주시던 스승님의 모습을 그리워했다.

록경 정사 부친 황보기문 각자 49재

록경 정사(정각사 주교)의 부친 황보기문 각자의 49재가 9월 14일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되었다. 부산·경남

교구장 시정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49재는 총지종 정통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가족 대표 록경 정사는 인사말에서 “저희 아버님의 고혼이 여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극락왕생서원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편안히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장례와 7.7재에 도움을 주신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며 가족들의 고마움을 전했다.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 합동 회의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지회장 신인

록)는 9월 25일 마산 운천사에서 회의를 갖고 하반기 지회 활성 방안을 논의 하였다. 부산·경남 각 사원 신정회장, 총무 등 총 23명이 자리를 같이한 이날 모임에서는 교화발전방안, 10월 부산 통일음악예술제 동참 후원 건을 논의하였다.

실지사 본존 및 만다라 봉안 헌공 가지 불사 봉행

서울·경인교구 실지사가 서원당 신축 불사를 마무리하고 본존 및 만다라 봉안 헌공 가지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봉안 헌공 가지 불사가 원만히 회향하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43년 10월 17일 오후 2시

장소: 실지사 서원당



불교 총지종

불교의 선정 32

사념처 수행

법념처(6)

관사성제(觀四聖諦)-멸성제
2-열반의 단계

화령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집성제를 설명하는 데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은 갈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갈애는 무명을 포함한 일체의 번뇌를 대표한다. 갈애로 인해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의 분별이 생기고, 좋은 것은 가지지 못해 괴롭고 싫은 것은 제거하지 못해서 화를 낸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싫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나의 즐거움을 방해하고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싫어진다. 한 마디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가 싫고 화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열반적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속박과 번뇌를 떨쳐버리고 심신이 안전한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무애자재의 경지가 열반이다. 그것은 번뇌의 근본인 무명을 제거하고 지혜를 밝힘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깨친다는 것도 지혜를 밝혀 무명의 번뇌를 떨치고 무애자재의 경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친다는 것은 곧 열반적정을 얻는다는 말과 같다.

열반을 얻기 위한 깨침에도 두 가지가 있다. 견도(見道)와 수도(修道)가 그것인데, 견도는 이론적, 관념적인 미망으로서의 견혹(見惑)을 끊는 깨침이고, 수도는 정의적(情意的), 습관적인 미망으로서의 수혹(修惑)을 끊는 깨침이다. 쉽게 말하면, 견도는 삿된 견해를 여의고 바른 견해를 지님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수도는 올바른 수행에 의하여 우리에게 혼숙된 나쁜 습성을 버림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견혹에는 흔히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의 근본 번뇌와 심신에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보는 신견(身見), 모든 것은 단멸한다든가 상주한다고 생각하는 치우친 견해인 변견(邊見),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견(邪見), 자기의 견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견취견(見取見), 터무니없는 계율이나 명세를 해탈의 참 원인으로 여기는 계금취견(戒禁取見)의 오견(五見)을 더하여 열 가지가 있다고 본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나누어 팔십팔사(使)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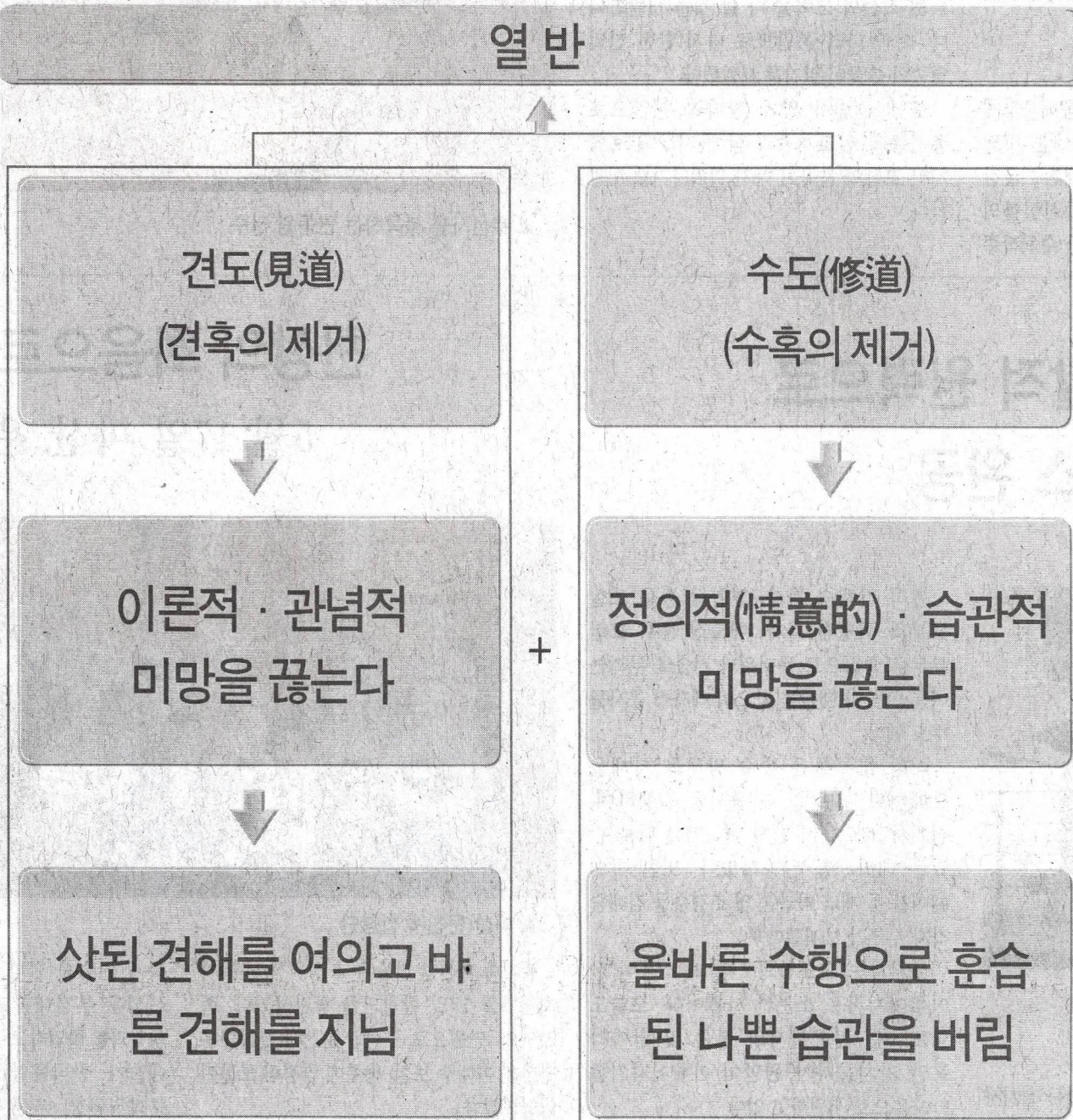
수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감각적, 육체적 미혹으로서 정의적이고 습관적인 번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의 습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혼숙된 번뇌이다.

견도에 의하여 연기와 사성제의 이치를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체득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부무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과 같이 소금이 짜다는 것은 알아도 그것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론적인 깨침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깨침이 체득이 되어 실천될 수 있어야 진정한 열반에 이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사성제와 같은 교리를 잘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수행에 의하여 사성제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깨침을 견도와 수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깨침은 열반에 이르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이다. 많은 재가신자들이 부처님을 처음 뵈고 사문, 계론, 생전론의 삼문에 의해 불도로 인도되고, 더 나아가서 연기의 이치와 사성제에 대한 설법을 듣고 법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보단계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연거나 사성제에 대한 이치를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초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법·승의 삼보를 믿으며 공경하고 계행을 지키는 것에 의하여 연거나 인과의 이치가 깨쳐진다. 이것을 사증정(四證淨)이라고 한다.

이치적으로 깨쳐진 실천에 의해서 깨쳐진 초보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불교의 진리에 맞게 살아가며 계율을 범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지옥·아귀·축생 등의 악취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것을 불타법(不墮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미래에 반드시 열반에 이를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정성결정(定性決定), 혹은 정정취(正定聚)라고 한다. 또 이러한 사람은 다시는 윤회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불퇴전의 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처럼 견혹을 끊어 법안을 얻는 것만으로도 삿된 견해를 여의고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범부의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최고의 깨달음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견혹만 끊어서는 되지 않는다. 수혹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습관적인 악습과 습성 등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수혹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견혹은 지혜로써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을 버리면 즉시 끊을 수 있는 것이지만, 수혹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본성처럼 혼숙된 것이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 나쁘다고는 알고 있어도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것이 수혹이다. 수혹은 오랫동안의 습성에 의해 굳어진 거의 본능에 가까운 번뇌이기 때문에 끊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담배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끊기가 어려운 것과 같다. 담배나 술이 건강을 해치고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눈앞에 담배나 술이 있으면 저절로 손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 술이나 담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나쁜 습성들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굳센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화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단절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어떤 것이 나쁘지도 모르고 마구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고친다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다. 견도와 수도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연기의 이치나 사성제의 도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는 하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오랫동안 습성으로 굳어진 우리의 나쁜 성향은 상당한 수행에 의해서만 고쳐질 수 있다. 불교의 교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상생활상에서는 그것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수행이 검미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는 많이 알아도 싫은 것 보면 화나고 좋은 것 보면 기분이 든다. 범부중생에게 있어 견혹을 끊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수혹을 끊는다는 것은 역시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견혹을 끊고 수혹을 완전히 끊어야만 아라한으로서의 깨달음이 얻어진다. 경전에서는 사향사과(四向四果)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정도에 따라 여덟 가지로 구

분한다. 수다원향(須陀洹向), 수다원과(須陀洹果), 사다함향(斯陀含向), 사다함과(斯陀含果), 아나함향(阿那含向), 아나함과(阿那含果), 아라한향(阿羅漢向), 아라한과(阿羅漢果)이다. 즉, 수다원과(須陀洹果)와 사다함향, 사다함과, 아나함향과 아나함과, 아라한향의 여섯 단계는 수도의 성자로 불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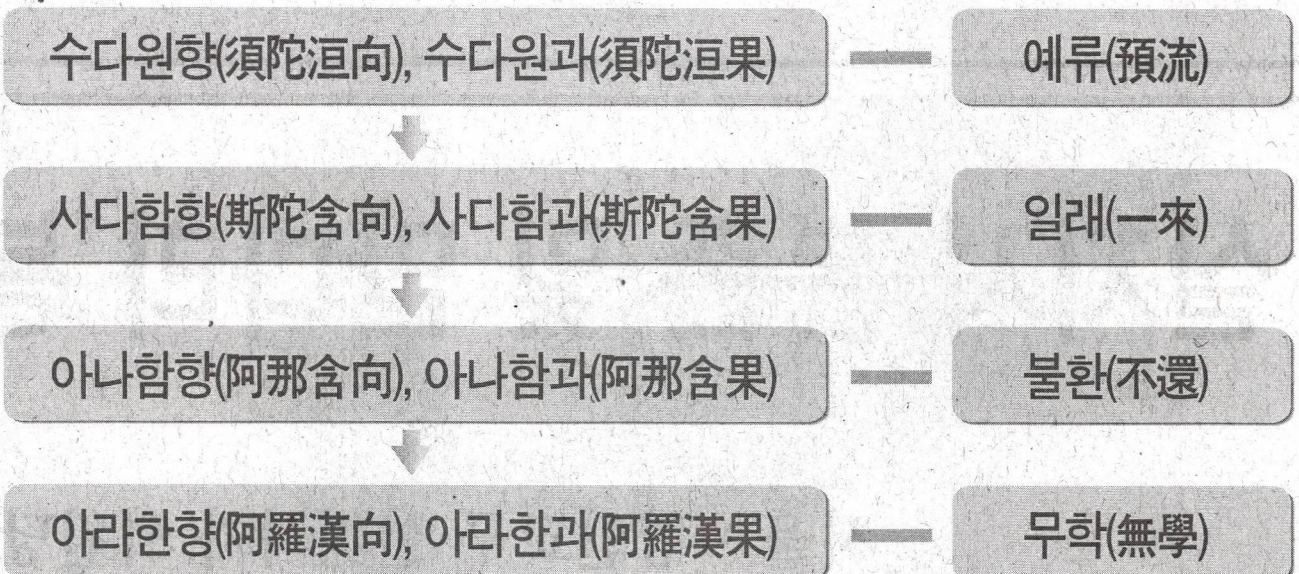
아나함향은 수혹을 끊고 다시는 욕계에 돌아오는 일이 없이 색계와 무색계를 거쳐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환향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것을 아나함과라고 한다. 견도에서 일체의 견혹을 끊고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모든 수혹의 번뇌를 단멸하면 아라한향이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라한과를 무학(無學)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전의 견도나 수도의 단계에 있는 성자를 유학(有學)이라고 한다. 배울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무학의 아라한과를 얻으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며,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아라한과를 얻어 성불하신 것이다.

열반에 이르는 단계는 이처럼 복잡하지만 결국은 견도에 의하여 바른 견해를 지니고, 수도에 의하여 우리에게 혼숙된 수혹을 떨쳐버리면 열반이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수혹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의 생존본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여간한 수행이 아니라고는 불가능하다. 완전한 열반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성제를 관하면서 멸성제의 가르침을 통하여 열반의 의미를 대략적이거나 파악하여 수행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병을 다스리는 원리를 사성제에 비추어 볼 때 멸성제는 병이 없어진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열반이다. 즉 열반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 건전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모두 건전하지 못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사향사과(四向四果)



분한다. 수다원향(須陀洹向), 수다원과(須陀洹果), 사다함향(斯陀含向), 사다함과(斯陀含果), 아나함향(阿那含向), 아나함과(阿那含果), 아라한향(阿羅漢向), 아라한과(阿羅漢果)가 그것인데, 이것을 예류(預流), 일래(一來), 불환(不還), 무학(無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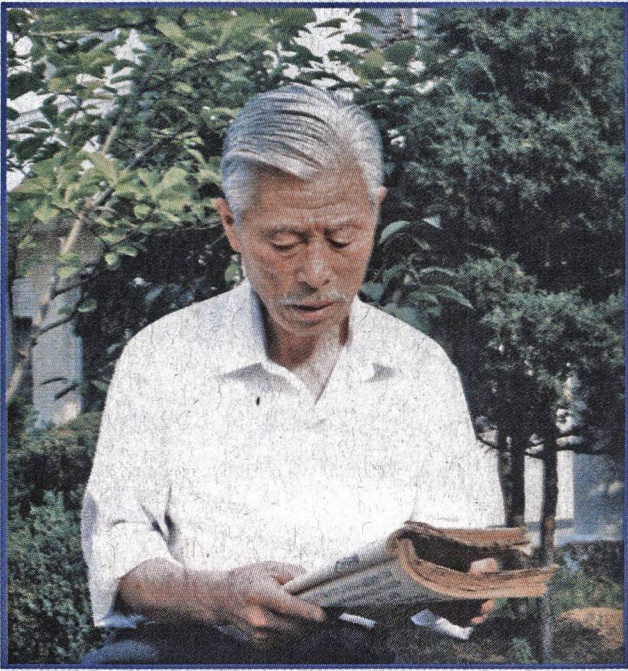
즉, 수다원향이라는 것은 초보의 성자를 말하는 것으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을 예류향이라고도 한다.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수다원과는 초보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예류과라고 부른다. 사다함향은 견혹을 끊는 과정이며, 그것을 다 끊으면 사다함과을 얻게 된다. 이 단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욕계에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색계와 무색계를 지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일래향, 일래과라고 한다. 욕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욕계의 번뇌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욕계의 번뇌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망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열반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열반의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없다. 열반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사성제를 통하여 이론적으로나마 열반의 의미를 유추해 봄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삶에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멸성제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고성제와 집성제, 그리고 마지막의 도성제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환당대종사 입적 20주기 기념 총기17년 추계 강공회 특별 법문 삼보호지와 검소절박으로 종단 정화를

금년 10월 2일은 종령을 역임하신 환당대종사 입적 20주년이며 또한 이번 달의 84회 추계강공회를 기념하여 환당대종사의 강공회 법어를 특집으로 게재한다. 이 법어는 고(故) 환당 대종사께서 총기 17년 추계 강공회를 맞이하여 내리신 것으로서 승단의 기강해이와 낭비 풍조를 질타하신 것이다. 고(故) 환당 대종사님의 종단에 대한 충정과 그 당시의 종단 풍토를 엿볼 수 있으며 오늘날의 우리도 이 법어를 통하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게재한다.



▲ 생전 경전을 연구하시는 환당 대종사

환당 대종사 추계 강공법어

오늘은 본인이 취임 후 세 번째 강공회를 맞는 날입니다. 올여름 이래로 몇 차례의 태풍과 큰 비로써 온 나라에 술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겹쳐서 시위사태로 말미암아 인재를 초래하였으니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역사상 우리가 일찌기 맛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 개헌이 이루어지느니 하여 우리 국민 중 사려 없는 국민의 마음을 들뜨게 하여 일부 경조부박한 위인과 일부 학생 중에 무분별한 사람들은 함부로 제 세상이나 여기고 위험천만의 언동으로써 북한의 소위 통일이념과 사상에 영합하는 작태를 함부로 하고 나오는 등 이 나라가 국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수화빙탄(水火氷炭:물과 불, 얼음과 숯)과 같이 서로 용납지 못할 급진좌경의 사상을 현로함은 심히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적어도 50년이나 백년쯤은 지나야 될 터인데 마치 초생달 보려고 어스를 무렵부터 나 앉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올 여름과 같은 천재(天災), 인재(人災)와 사회

적 혼란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도 모두들 용케도 헤어나오셔서 교화도 잘들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을 뽐내며 되니 마음속으로 믿음직하고 기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는 오직 대일여래의 가지(加持)로 말미암아 석화한 까닭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강공은 일정이 너무나 촉박하여 느긋한 기분이 적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쪼록 열심히 건실적 토론과 격의 없는 의사교환을 진지하게 나누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불어 본인이 특히 이 자리에서 승단 여러분께 간절히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고 게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제가 취임사를 통해 세 가지를 들어 언급한 것입니다. 그때 그저 간성으로만 흘러들고 잊어버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때 드린 말

수(以戒爲首:계를 지킴을 으뜸으로 함)라고 했습니다. 계 받을 때 불전에 맹세한 것을 언제 내가 계를 받았나하는 식으로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행동하면서 천당도 극락도 몰리치고 성불도 아예 포기한다면 모르거나 나쁘게 말해서 계행 안지키는 자신은 그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나쁜 성벽이 전염되어 오염시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소인된 자는 잊어든지 못하는 것이 없다가도 선지식을 만나면 시점을 때고 동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홀로 있을 때를 더 삼가야 하는데 그 반대로 유유끼리 모였다면 마치 성도대화 하는 것처럼 논인장단(論人長短:사람의 장단점을 시비함)이나 하고.... 이렇게 하여 일상을 지난다고 할 때 부처님을 뵈을 면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참회를 합시다. 모두들, 어떤 전수정사님은 자유자발적으로 일제를 참회하고 외부와도 연락을 끊고 스스로 근신하

유찬(神明幽贊:천지신명이 도움)의 정(情)과도 대동한 것이므로 우리 밀교도 온 누리에 뻗어 일체 합식이 치화(至化:모두 제도됨)에 돌아갈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은 법계에서 용서받아 번영을 꿈 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취임 이래로 일 년간은 그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것인 바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종단 내의를 통하여 스스로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나 하늘같은 자비대도를 걷는 우리 승단에 소소한 허물이 보인다고 하여, 또 큰 과오를 저질렀다 하여 예고도 없이 우리 대열 밖으로 체탈도첩(摺奪度帖:승적을 박탈함)하고 송출할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일년 동안 기간을 두고 도기지방(度幾之望: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바람)으로서 행어나 혼미한 생각을 버리고 번연대오(懺然大悟)하여 불자 본연의 자제로 돌아올

초심으로 돌아가 계행을 지키고 대중참회로 자정이 필요

숨을 상기시켜 재강조하고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평소의 언행은 심중소발(心中所發: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마음작용으로 말미암아 곧 얼굴에 칠정(七情)의 감동한 것이 빠짐없이 노현(露現:드러남)되므로 남이 먼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우중(愚衆:아리석은 무리)들과 선지식은 구별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행이 진리에 계합하지 않을 때는 그 허물되는 것을 참회하여 버리지 않고 위선으로 허물을 부끄럽다고 고치지 않으면 그 허물이 오래되어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허물이 중말에는 그 악의 과가 익고 굴어져서 크게 또는 혹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 생사에 관계되는 큰 병이 나든가 혹은 재물이 크게 나가게 되든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보를 지키는 이나 착한 일 하는 이를 혈뎀어 말하든가 진에 심을 품던가 원망의 말로써 비방 선동 매도하던가 하면 그것이 화합을 크게 깨는 길입니다. 그런 행실은 결과적으로 그 과가 다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행에 대하여, 이것 역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계정해 삼학 중에 이계위

고 있는 이도 있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이는 그야말로 바라이죄를 범하고도 남이 못 들었고 안보고 했으니 모를 것이다고 여기고 참회 않는지 몰라도 다른 이가 비록 모른다하더라도 신불(神佛)은 빠짐없이 살피고 게실 것이며, 아니 신불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결국에는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시사철 들어앉아있는 나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나 모를 까닭이 있나 말입니다. 누구의 언동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이 저절로 전파되기 마련이나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절박하고 검소한 생활로서 인간 본연의 소박한 자제로 돌아가서 불자로서의 범성(法城)을 수호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중생의 화육(化育)의 공이 크게 현양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말로는 검소절박을 떠들고 정재를 아끼네 어쩌네 하면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순진한 중도들에게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불바람이 불어오면 만류가 함자(咸滋:함께 자라남) 하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온갖 음기가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건곤역간(乾坤易簡:음과 양이 번갈아 바뀔)의 도(道)는 이것이 곧 신명

까 여겨봐도 조금도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고 삼보를 혈뎀고 해 중행위를 하며 화합은 커녕 분열을 조장하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최후의 기회를 주어 스스로 반성 참회토록하니 각기 자기 마음에 과오를 범했다고 느껴지거든 즉시 대중참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서 인비친전(人秘親展)으로 종령에게 우송하던가 해서 참회의 길을 찾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하는 분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는 구경에 가서 대중에 의해 폭로 처리 될 때에는 승단의 빈축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지명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스스로 잘 알아서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으므로 그 양심 기준에서 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위, 전수 정사를 막론하고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총기 17년 10월 22일
종령 환당(歡堂)

선시(禪詩) 감상

회포를 적다

지은이 경허성우

변방에 머무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니
천 가지고향 생각 어찌 다 적으리.
병으로 쇠약한 몸은 수행의 뜻 어렵게 하거니와
글재주인들 누가 소개처럼 가법계 얻을 수 있으리.
하늘에 구름이 흩어지니 층층의 봉우리 자태 보이고
깊은 골짜기에 바람이 아니 낙엽소리 들려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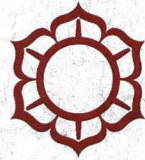
돌아가지 못하던 몸 문득 돌아가게 되니

지리산 영원사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육손이라
하다한 이름과 모습을 다시 어찌하오리

늘 보아오던 겹겹의 봉우리의 안개진 겨우살이 넝쿨 속에
머리 없는 원숭이가 거꾸로 가지를 타고 오르네.

*경허성우 스님은 1894년 법어사 조실이 되었고, 1899년에는 해인사에서 임금의 명으로 인경불사와 신설하는 수선사(修禪社)등의 불사를 주도한 구한말의 선승이다.



불교총지종 교도복지시설 희락원 입소안내

불교총지종이 교도들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새로 운영하는 성남 교도복지시설 희락원이 준공 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신행생활과 함께 노후를 보내실 총지종 교도들의 입주를 기다립니다. 서울·경인 교도들 중 65세 이상으로 '오세대제도'를 성만하신 분과 입교20년 이상인 총지종 교도는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의 내부 심사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 교도복지시설: 성남 법천사 내, 3층 총 15실
- 입소인원: 1인 1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는 1실 2인 입주가능)
- 편의시설: 공동세탁실, 공동목욕탕, 공동취사시설 및 1일 3식 제공
- *매월 소정의 공양 준비금은 따로 납부합니다.

문의 각 사원 주교 및 총지종 통리원 전화) 02)-552-1080



▲ 개별화장실



▲ 공동욕실



▲ 공동주방



▲ 생활공간



일본 불교 진언종 총본산 고야산 탐방(2) 공해대사의 전설이 깃든 삼고저의 소나무

마을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작은 규모의 사원들을 여럿 만나 볼 수 있다. 우리로 말하면 진언종에 소속된 말사들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사원들을 대물림한다. 한 가족 자체가 승가인 것이다. 먼저 발길을 들른 곳은 단상가람(檀上伽藍)이다. 정문은 한창 공사 중이어서 원편으로 난 임시 통행로를 따라 사원으로 들어섰다. 금당(金堂), 근본대탑(根本大塔), 산왕원(山王院), 어영당(御影堂), 삼고(三鈷)의 소나무, 부동당(不動堂), 서탑(西塔), 동탑(東塔), 삼매당(三昧堂), 대회당(大會堂), 애염당(愛染堂) 등 전각들이 즐비하다. 일본 사원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건물의 규모가 위압감을 준다. 산과 어울려 자연의 라인을 거스리지 않는 우리나라 사원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 물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생각하면 불심으로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 권위를 부여 했을 것이라 생각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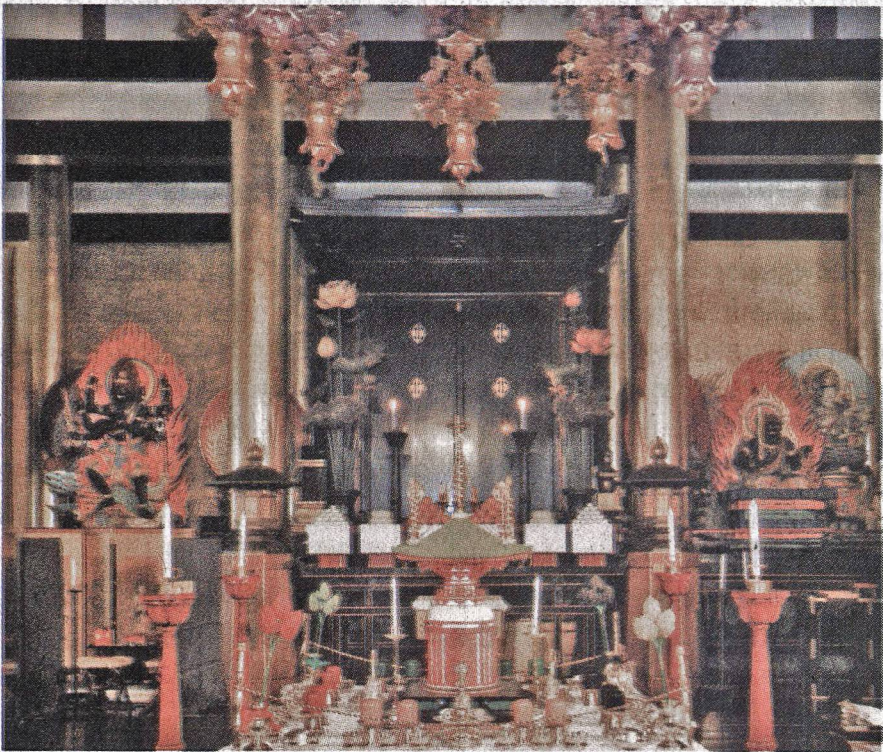


단상가람의 중심전각 금당(金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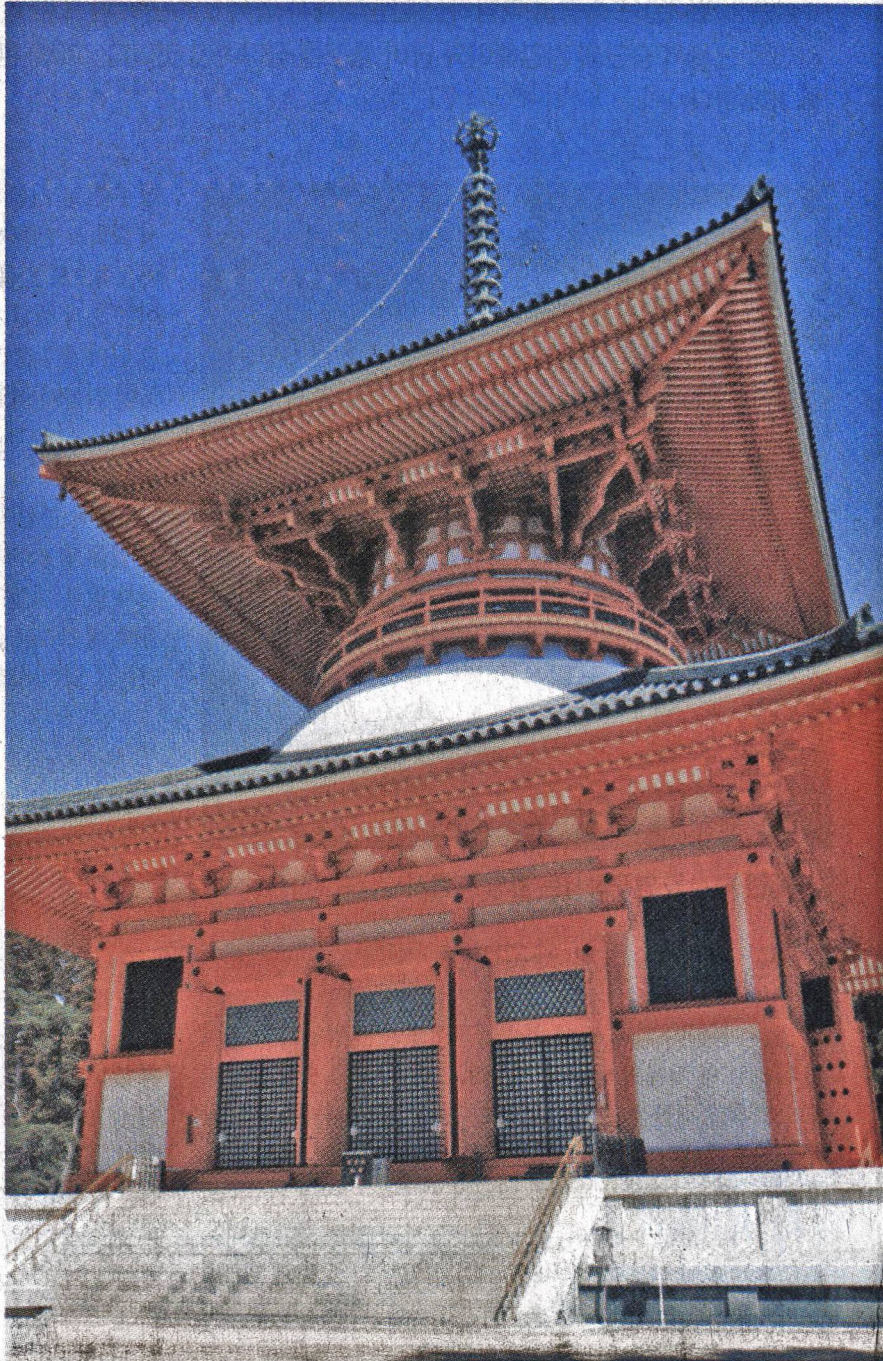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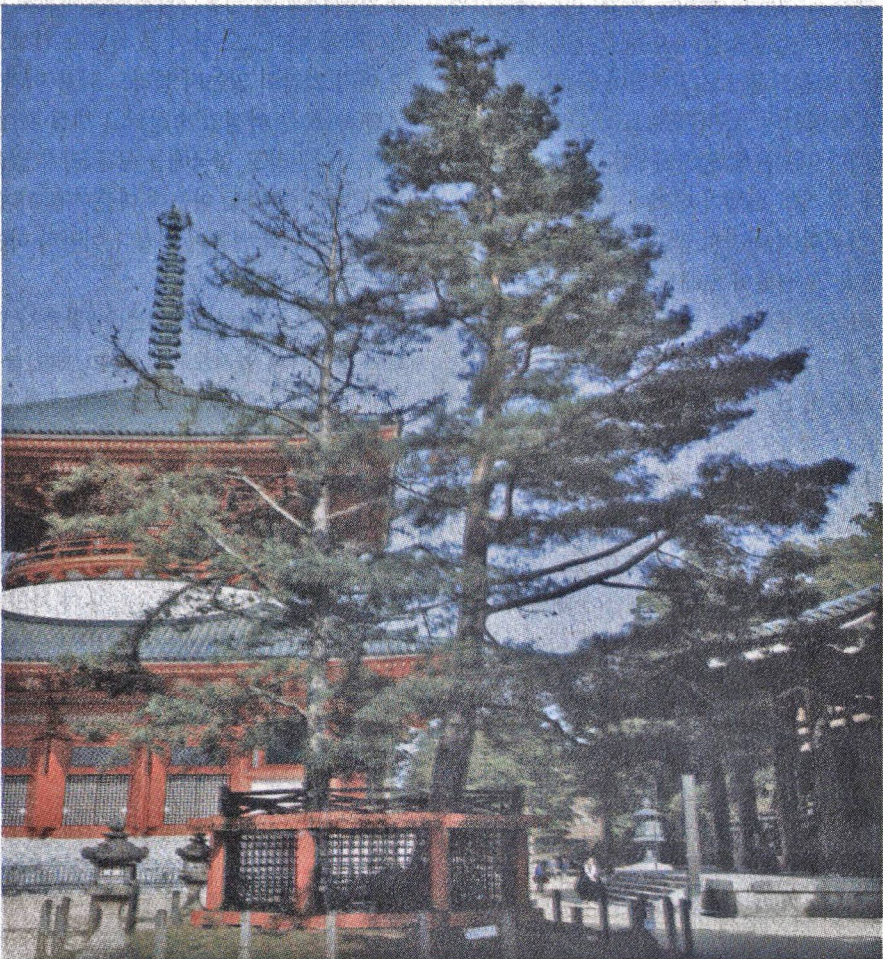
금당 참배를 위해 신발을 벗고 합장한 뒤 입구로 들어서니 입장료를 받는다. 누가 파는 사람은 없다. 자율적으로 동전을 넣고 입장하면 된다. 우리와는 달리 절을 하지는 않는다. 나도 향을 사르고 서서 삼배를 올렸다. 금당은 고야산 창건 당시에는 강당이라 불렀다. 헤이안(平安)시대 중반부터 고야산의 총본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7번째로 중수한 것으로 쇼와(昭和) 7년(1932년) 낙성 한 것이다. 정면 23.8미터, 측면 30미터, 높이 23.73의 규모이다. 외부에서는 목조 건물로 보이지만 내진시설과 방화를 고려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 본존불로는 약사여래를 모셨다고는 하나 불감속에 모셔져 있어 친견은 하지 못했다. 협시불로 금강보살이다. 오른쪽 모퉁이에는 공해대사가 모셔져 있다.

공해대사의 삼고저(三鈷柞)가 날아와 앉은 소나무

금당을 중심으로 원편에는 특이한 소나무가 한그루 있다. 이 지역의 삼림이 대부분 삼나무인 것을 고려하면 특이한 일이다. 수령이 1,200년이나 되었다지만 그다지 우람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 소나무에는 공해대사의 전설이 담겨있다.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진언 밀교를 펼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위해 밀교의 법구인 삼고저를 일본을 향해



던졌다. 후에 공해대사가 고야산에 당도했을 때 사냥꾼으로부터 밤마다 빛을 발하는 소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다. 대사는 곧장 그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 나무 위에는 당나라에서 자신이 던진 삼고저가 걸려있었다. 대사는 이곳이 밀교의 법을 펴기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하고 사원을 세우기로 한다. 지금도 참배객들이 소나무에서 떨어진 앞을 부적처럼 여기며 가져가고 있다.



근본대탑(根本大塔)

금당 뒤편으로는 근본대탑이 자리한다. 일본의 탑은 우리나라의 석탑과는 달리 대부분이 목탑이다. 언뜻 보면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과 비슷한 느낌이다.

1층은 방형, 2층은 원형이다. 이 탑은 공해대사 열반 1,100년을 기념해서 쇼와 12년(1937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재건한 것이다. 본존으로는 대일여래를 모시고 그 주위에는 오방불로 금강계 사불을 모시고 있다. 특이한 점은 태장계와 금강계의 불·보살들이 한 공간에 같이 봉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계 만다라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공해대사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근본대탑이라 이름 지은 유래라 한다. 탑내에는 16개의 기둥이 있고 기둥에는 16대보살상이, 네구석에는 밀교를 전한 8대 조사상이 그려져 있다. 북측에 안치된 다문천과 지국천은 에도(江戸)시대에 만들어져 중문에 있었는데 화재에서 기적적으로 소실을 피해 이곳에 안치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글, 사진= 한신대학교 겸임교수 김재용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총지종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최상품
1kg 15,000원
무료배송

성분 및 효능

●시력개선 효과 ●변연력, 기억력 강화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 방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가을 곱게 물든 단풍과 함께하는 사색의 시간을 서울시 추천 단풍길



가을이다. 이제는 아침저녁 옷깃을 여미며 차가운 바람이 어깨를 움츠리게 한다. 이른 추석을 맞은 탓에 계절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듯 했으나,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다는 사실과 계절은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새삼 느낀다.

가을 하면 누구나 단풍과 바스락 거리면 낙엽을 밟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한다. 전국의 유명한 단풍 관광지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우리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자.

서울시는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을 위해 가을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아름다운 단풍길' 81곳을 선정하고 10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기 좋은 단풍길

경복궁 담장을 넘어 화랑과 공방이 즐비한 삼청동 길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등 활엽수의 단풍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코스인 덕수궁 돌담길도 멋진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수북이 쌓인 낙엽 거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이태원로, 동대문, 풍물시장 등 볼거리 가득한 청계천로도 데이트 코스로 선정되었다. 메타세콰이어 산책로를 걸으며 운치 있는 분위기의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양재 문화 예술 공원은 가족, 연인이 함께 해도 좋은 산책로이다.



혼자 걷기 좋은 단풍길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단풍 길로는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은행 단풍 거리로 유명한 회기리와 야간조명이 켜진 단풍 길에서 즐기는 산책과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동일로, 터널형 가로수 단풍이 일품인 목동서로 10길,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고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곳인 공암나루 산책길, 조용히 단풍을 즐기기에 좋은 인수봉로 등 고요하게 들려오는 바람소리를 벗 삼아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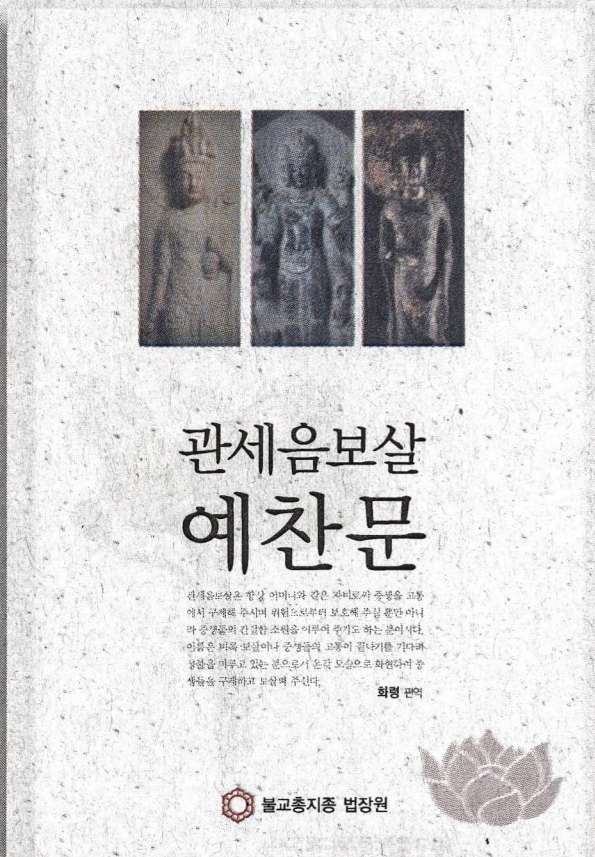
자료제공=서울시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단풍길

아침 일찍 근처 김밥가게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챙기고 집 근처 가까운 공원 단풍 길로 나들이 떠나보자.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과 함께 찾아도 좋을 만큼 잘 가꿔진 단풍 길은 서울 곳곳에 있다. 푸른 나무가 무성한 관악산 단풍 길은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린아이나 어르신과 함께 나들이 가면 좋고, 뱃나무와 단풍나무가 인상적인 위커했 길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은 곳으로 편안히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안성맞춤이다.

또한 남산 북측산책로와 송파나루공원도 단풍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도 있으며, 대형 놀이공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계획 중이었다면 송파나루공원을 추천한다. 이 외에도 올림픽공원, 독섬 서울 숲 등 가을 단풍을 맘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백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음마니반메혹의 의미와 수행법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8)

만다라의 존상(尊像) ⑤ ‘보살(菩薩)’

지난 호까지 만다라상에 제1위(位)로 안립되는 부처님의 상, 불상(佛像)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이번호에서는 제2위(位)인 보살상(菩薩像)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살은 부처님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덕성(德性)과 공능(功能)을 대신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분들이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 생각하면 된다. 너무 경박스런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해하는 데는 당상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공능과 덕성에 맞는 역할을 대신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과 성불이나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분들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 부처님에 따라 다양한 보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보살의 상(像)을 일러 존상(尊像)이라 통칭하기도 한다. 특히 밀교에서는 존상(尊像)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나중에 살펴볼 명왕(明王)이나 천왕(天王), 천신(天神), 천녀(天女) 등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보살은 부처님의 공능과 서원을 대신하여 일제중생을 구제하고 인도하는 분이다

보살은 보디사트바, 보리살타의 준말로 깨달음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가운데 보살은 부처님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는 존상(尊像)이다. 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bodhisattva, 팔리어로 bodhisatta라 한다. 이를 소리나는대로 읽으면 보디사트바, 보디사타가 된다. 이를 우리는 보리살타(菩提薩埵)라 부르고 줄여서 보살(菩薩)이라 하는 것이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자, 깨달음의 완성에 노력하는 자, 부처가 되려고 뜻을 세운 자 등을 의미하는데, 원래 보살은 부처 되기를 수기받은 자를 가리켰으나 대승불교에 오면서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를 나타내는 말로 확대되고 일반화되었다. 보살상(菩薩像)의 보살은 우리와 같은 일반 수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가 되기 전의 수기보살로 비유된다. 부처 되기 전의 보살로서, 부처님 아래 단계의 계위(階位)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인도하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보살의 상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부처님의 32상이나 80종호와 같은 특징은 없지만 큰 틀은 몇 가지 있다. 대체로 보살상은 상반신이 나신(裸身)이고, 하반신엔 치마를 두르고 있으며, 머리는 보계(寶髻)를 하거나 때에 따라 보관(寶冠)을 쓴 경우도 있고, 천의(天衣)를 입고 여러 장식(裝飾)으로 치장하고 팔찌를 하며 손에는 여러 가지



▲ 보살상의 각부 명칭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은 곧 그 보살의 덕성(德性)과 서원(誓願)의 내용을 나타낸다. 특히 장식을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높은 덕(德)을 나타낸다.

보살상의 각부의 명칭은 그림과 같다.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보살상의 각부의 명칭은 보살의 특성과 서원을 상징

보발(寶髮)은 ‘보배 상투’라는 의미로 보관과 같은 모양의 상투를 높게 들어 올린 것을 말한다. 보관(寶冠)은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배로운 것이라 하여 보관이라 이름이 붙여졌고, 여기에는 보살의 특성과 서원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의 보관에는 아미타불이라는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는데, 아미타존불의 협시보살로서 서방극락정토로 인도한다는 의미와 서원을 담고 있다. 화불(化佛)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에 따라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는 부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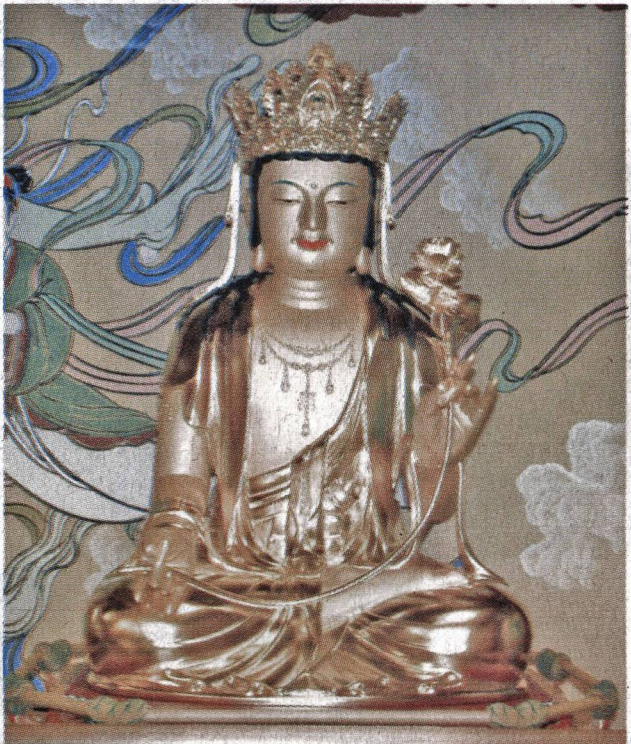
보관대(寶冠帶)는 천관대(天冠帶)라고도 하는데, 본래 어깨나 머리에 띠를 매고 꽃을 장식하였던 것인데, 그 흔적이 관(冠)의 장식품으로 변용(變容)되었다. 이당(耳瑠)은 귀에 거는 구슬로서 귀걸이를 말하며, 흉장식(胸裝飾) 또는 흉식(胸飾)이란 가슴에 장식을 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장식이 영락(瓔珞)이다. 영락은 목이나 팔에 두르는 구슬의 장신구를

말하는데 대개 목에 걸면 그것이 가슴 까지 내려오므로 영락을 흉식(胸飾)이라 부르기도 한다.

비천(臂釧)은 팔에 가는 팔찌를 말한다. 손목에 차는 팔찌가 아니라 어깨의 아랫 부분에서 팔꿈치 사이에 차는 팔찌다. 완전(腕釧)이란 팔이나 손목에 차는 팔찌를 말한다.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에 차는 팔찌다. 즉 비천은 팔꿈치 윗부분에 차는 팔찌이고, 완전은 팔꿈치 아랫 부분에 차는 팔찌다.

지물(持物)은 이미 수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불보살이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 서원을 상징하는 법구(法具)나 무기(武器), 꽃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연화(蓮華) · 여의보주(如意寶珠) · 염주(念珠) · 법륜(法輪) · 검(劍) 등이다. 연화(蓮華)는 깨달음을 나타내고, 여의보주(如意寶珠)나 염주(念珠)는 성취를, 법륜(法輪)과 검(劍)은 진리와 지혜 등을 나타낸다.

천의(天衣)는 원래 하늘나라에 사는 천인(天人)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살이 어깨에 걸치는 옷을 말하고, 조백(条帛)은 상반신에 걸치는 옷으로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처럼 생긴 옷이다. 상(裳)은 치마를 말하는데 보살이 입는



▲ 포항 수인사 득락전(得樂殿)의 관세음보살상

하의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를 군(裙) · 군의(裙衣)라 부르기도 한다. 모두가 치마라는 뜻으로 동일한 말이다. 석대(石帶)는 허리 띠를 말하는데, 대개 보석을 박은 띠를 두르고 있다.



▲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

보살은 주로 자비스러움으로 비유되는데, 그래서 여성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살은 성(性)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달리 표현될 뿐이다. 즉 공능(功能)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보살들이 등장하는 이유다. 또 여러 가지 장식은 사치와 화려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온화하고 우아함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 살피는 보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조성된 보살들은 관세음보살 · 문수보살 · 보현보살 · 미륵보살 · 지장보살 · 대세지보살 · 일광보살 · 월광보살 · 약왕보살 · 약상보살 등이다. 이 가운데 관세음보살은 다시 육관음보살로 나누어지는데, 성관음 · 천수관음 · 준제관음 · 여의륜관음 · 십일면관음 · 마두관음 등이 있다. 여기에 불공견색관음을 더하여 칠관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불보살을 친견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발원하나이다.

〈다음호에서는 불보살 외의 제존(諸尊)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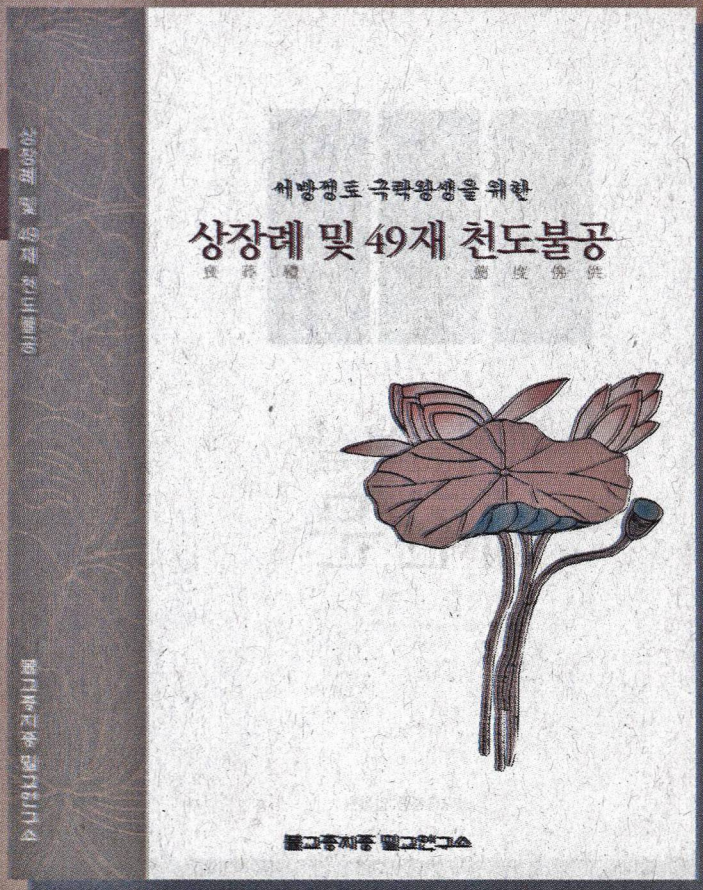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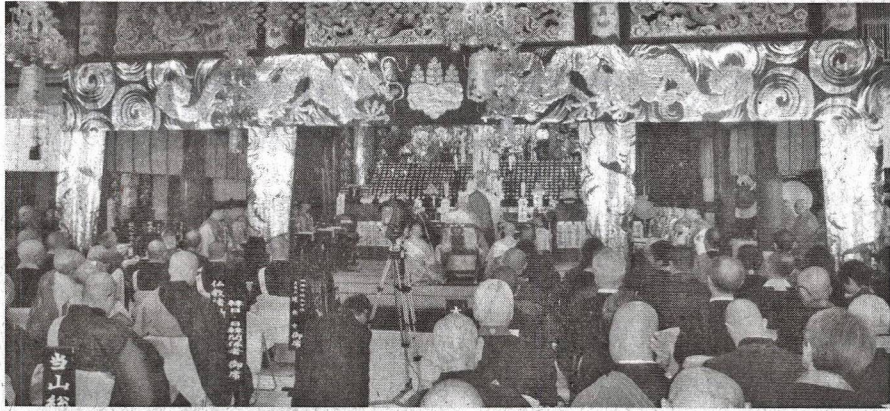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일한 불교문화교류협의회 미야바야시 회장 장례식 봉행

9월 16일 일본 가마쿠라 광명사에서, 법등통리원장 참석



▲ 일본 가마쿠라 정토종 대본산 광명사에서 봉행된 장례법회

지난 7월 10일 원적에 든 일한불교문화 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의 본 장례식이 9월 16일 일본 가마쿠라 정토종 대본산 광명사에서 봉행되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회는 회장 자승 스님, 사무총장 법등 정사를 비롯한 총 14명의 조문단을 파견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회 회장 자승스님은 조사를 통해 “한국불교계와 오랜 선린

인연을 맺어 오신 일한불교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큰스님의 입적을 한국의 모든 불자와 더불어 애도합니다. 평생 한일불교문화교류를 통해 한결 같이 보내준 진심어린 화해와 참회의 정신이 한국 불자들의 마음에 오롯이 남아있기에 스님의 소식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며 “스님은 생전에 한국 국민과 불교계를 부리 깊은 동반자 관계로 이해하시고,

정치적 시선과 우려를 뒤로한 채 오로지 종교인으로서 양국 간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양국불교계간 우호 확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오신 일본의 양심자셨습니다.”라고 스님의 원적을 한국불교계를 대표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광명사 본당에서 시작된 장례식은 수 천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 측 참석 인사는 한일불교문화 교류회 회장 조계종 자승 스님, 사무총장 총지종 등 정사, 부회장 천태종 준광 스님, 진각종 회정 정사, 관음종 흥파 스님, 총화종 남정 스님, 상임이사 원효종 향운 스님, 조계종 개태사 양산 스님, 한일불교여성부 백명숙 회장과 수행원들이 동참했다.

일본 가마쿠라-한일불교교류협의회 이종진 차장 제공

천태종, 대총대종사 21주기 열반대재

26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사부대중 1만 명 참석



▲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총대종사 21주기 열반대재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한 대총대종사의 21주기 추모 열반대재가 봉행되었다.

천태종(총무원장 준광 스님)은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사회와 책임노전 화산 스님의 집전으로 열반대재를 봉행

했다. 열반대재에는 도용 종정 스님 비롯해 원로원장 문덕 스님, 총무원장 준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최용춘 한국교수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은 추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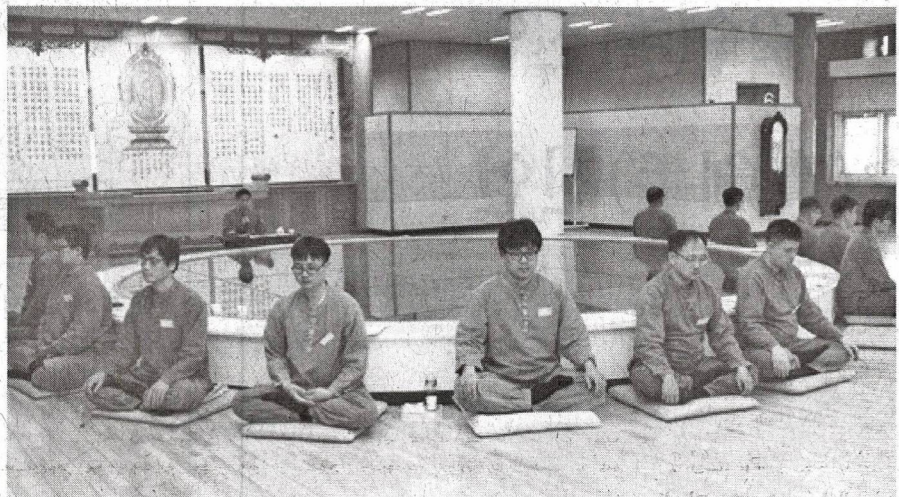
에서 “대총대종사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 자체가 정법안장의 원만각행이셔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배웠다. 그래서 그 깊고 넓은 덕화가 더욱 그림고, 그 창정하신 법음이 더욱 사무치는 것”이라며 회고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추모사를 통해 “30년 전 인도 네루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가 있었는데 인도 성지순례를 오신 대총대종사님을 처음 뵈었다. 당시 라면 몇 개와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셨다. 따뜻한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천태종 2대 종정을 지낸 대총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상월원각대조사의 뒤를 이어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 천태종 중흥에 힘썼다. 1993년 음력 9월 구인사 조실에서 열반했다.

진각종 스승대상 첫 수행연수 개최

생활의범 · 수행토론 · 수행정진 등 실시



▲ 진각종 교육원 스승대상 수행연수

진각종 교육원(교육원장 경당 정사)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각종 스승대상 첫 수행연수를 실시했다.

삼학심인당 주교 법연 정사를 비롯한 13명의 정사들이 참가한 제8기 수행연수는 발단불사를 시작으로 생활의범, 수행법 강의(심공법), 자기발견의 시간, 수행실습, 수행토론(회사법 · 삼밀법 · 교화법), 회사법 강의(교화법), 수행정진, 명상의 시간, 통리원장과의 시간, 해단불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연수 첫날인 9월 15일 진각종 교육원장 경당 정사는 수행법 강의를 통해 “전국의 각 심인당에서 신교도들의 마음공부를 지도하고 있는 스승님들이 정작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다”면서 “내가 수행자이자 교화자임을 잊지 않고, 내가 왜 염송하고 회사하는 가?를 바르게 알고 신교도들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당 정사는 이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수행은 훈련이다. 끊임없이 반복하다보면 그것이

습이 되고, 체질화되어야 비로소 그 속에서 방편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수행토론과 수행정진이 진행됐다. 먼저 통리원 재무국장 수혜 정사의 지도로 회사법에 대한 토론을, 교육원 교법연구국장 해당 정사의 지도로 삼밀법에 대한 토론을, 끝으로 교무국장 수각 정사의 지도로 교화법에 대한 연수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경전심인당 법정 정사가 회사법(물질법)에 대한 강의를 했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안산심인당 주교 보성 정사의 지도로 명상의 시간을 갖고, 통리원장과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교화는 자기인격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현세정화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인격완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진각종에서는 그 수행이 바로 염송이다. 또한 현세정화를 위한 방법이 바로 회사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원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각종 전수들을 대상으로 제9기 수행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간의 생명과 권리는 그 자체로 존엄해야 합니다

조계종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무차대회



▲ 조계종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무차대회

조계종은 9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조계사 마당에서 자성과 색신결사 추진 본부(본부장 도법스님)와 빈곤사회 연대(대표 박경석)의 공동주관으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초청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었다.

무차대회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중과 함께 불법(佛法)을

펼쳐며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나눠 주면서 진행되는 법회를 뜻한다.

조계종은 지난 2012년, 2013년에 이어 금년까지 세 번째로 봉행된 무차대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단체, 쪽방주민, 홈리스 아학 학생, 빈곤층 어르신, 거리 노숙자 등 200여명과 함께 아픔과 상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도원스님(홍천군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무차대회 1부는 ‘추모의 장-이웃을 부처님으로’ 주제로 빈곤 때문에 돌아가신 이들을 위한 위령제, 총무원장 스님의 인사말, 사찰과 단체 후원결연식이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사회의 빈곤은 자본과 물질에 우선하는 무한경쟁과 인성경시의 사회문화가 주요한 원인”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권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존엄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빈곤을 노래하다’에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직접 배식에 동참하여 저녁공양을 대접하고, 공양 시간 동안 노동자 가수 박준, 노들음악대(장애인 밴드), 홈리스 밴드가 노래로 참석자들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법경 지음

六字儀軌

법경 대정사 지음 / 밀교연구소장 /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 의예절’,
‘사원당 예절’, ‘불교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 제 996-2호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 996-2호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榮州 毘盧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거리 산17 비로사
시대: 통일신라

비로사는 신라말 고려초의 명승 진공대사가 다시 지은 유명한 사찰이다. 이곳에는 2구의 불상이 있는데 원래 광배(光背)와 대좌(臺座)를 모두 갖추고 있었으나 광배는 깨진 채 버려졌다.

높이 1.13m의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완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로 현실적 사실주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 옷은 왼쪽 어깨만을 감싼 형태이며,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양 손의 엄지 손가락을 맞대고 있다.

높이 1.17m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단정한 얼굴과 안정된 신체의 형태로 석조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이 현실적 사실주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 양 어깨를 감싼 옷은 얇게 빛은 듯한 평행계단식 주름으로 자연스럽게 보인다. 손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모양으로 일반적인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취하는 손모양이다.

두 불상은 단아하면서도 선의 특징, 몸의 자세 등이 대체적으로 9세기 후반 석불과 비슷하고, 동시에 나란히 아미타여래좌상·비로자나불좌상이 같이 있다는 점에서 9세기 통일신라 화엄불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이라 하겠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훌라.kr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젊은 나이에 일찍(?) 백수가 된 백충각

아유, 몇 끼를 굶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네.

한 번 백수면 영원한 백수를 주장하는 노충각

사흘을 굶었더니 뱃가죽이 등에 붙었어.

흠, 흠! 이건 맛있는 파전 냄새.

저건, 동동주와 파전.

인정도 메마르지. 헉!

저건, 동동주와 파전.

아이고! 누가 여기다 한 상 차려놨네.

저, 저놈이! 그만두지 못해?

꿀꺽! 이걸 몰래 먹다간 곤장을 맞겠지.

야, 인마! 때탄다, 그만 봐라!

백주에 파전 절도죄로 곤장 다섯 대!

아이고! 모르고 그랬어유!

살짝, 허만 대보는 건 괜찮겠지.

우아악! 저, 저놈이. 동작 그만!!!

모르고 그랬어도 죄 값은 받아야해!

아우~! 엉덩이야.

거기다 침을 묻히면 어떡해.

아웃! 넘하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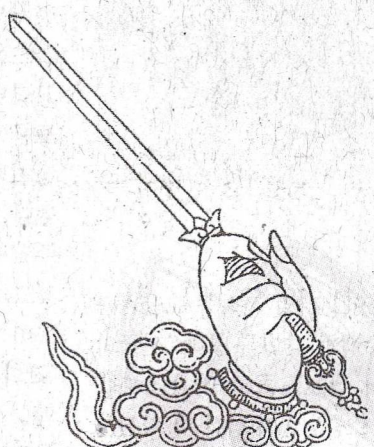
주실려면 골게 주시징.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3편 업감연기편 242p"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4. 보검수(寶劍手)진언



옴 제세제야 도미니 도제 사다야 흠 바탁

만약 일체의 허깨비와 귀신을 항복받으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 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테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불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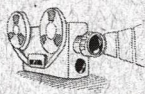
가격

대(大) 20,000원

소(小)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영화에서 불교보기 <36>

적게 가질수록 풍요롭다, 부탄식 행복론 승려감독 키엔츠 노부의 <나그네와 마술사>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사실 지겨웠습니다. 영화를 보는 눈이 높아졌는지 제3세계 영화는 많이 허술하게 보였지요. 주인공 연기도 어색했고, 교훈을 주려는 감독의 태도도 거슬렸고, 개연성 없는 조연들도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쯤 지나자 이런 결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수함'과 '작함'이 영화의 큰 장점인데,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은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세기 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부탄 사람들의 착한 모습은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물든 마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부탄, 2003)는 부탄의 유명한 승려이기도 한 키엔츠 노부 감독의 작품입니다. 앞서 그는 <갑>이라는 영화를 통해 색다른 불교영화를 보여주었는데, 최근엔 <바라, 축복>이라는 영화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라, 축복>은 제 1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내정되었다고 하네요.

키엔츠노부 감독은 새로운 흐름의 불교영화를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영화는 불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욕망'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말합니다. 다소 목격한 주제지만 무겁지는 않습니다. 영화 주인공들은 모두 크든 작든 욕망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그 욕망의 허망함을 깨달을 준비가 된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는 오히려 가볍고 밝은 편입니다.

<나그네와 마술사>의 주인공은 부탄의 한적한 사골 마을 공무원입니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며, 공무원이라는 관직은 직업도 있고, 사람들에게 신망도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의 반나절 치 일당이 자신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 나니 부탄에서의 삶은 시시하고 재미없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영화는 공무원 돈덕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비자를 받기 위해 부탄의 수도 팀부로 가면서 본격 시작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물든 돈덕을 볼 때까지만 해도 부탄이라는 나라는 평범했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돈덕



이 '미국'이라는 욕망을 품고 사는 모습은 '돈을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고 싶다'는 우리 욕망과 닮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의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다. 그런데 감독은 물질적 욕망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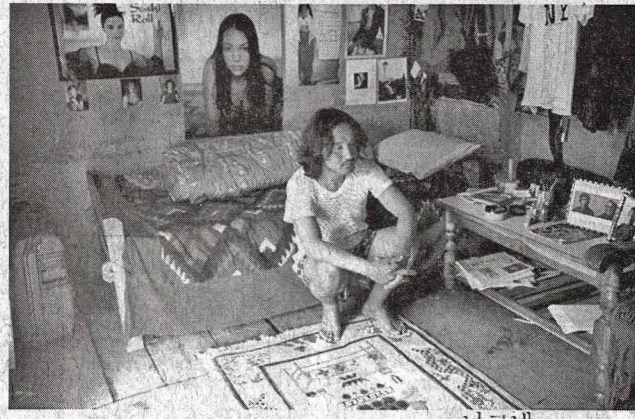
돈덕이 사골마을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은, '미국'이라는 욕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덕으로 하여금 이 욕망을 채우게 하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욕망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행복인가,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이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물론 결론은 간단합니다. 욕망은 비율수록 행복하다고, 감독은 부족한 삶이 오히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러니컬한 풍경을 사실적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놓친 돈덕은 히치하이킹을 하기위해 서있었습니다.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은 사과장사입니다. 사과장사 또한 히치하이킹으로 팀부로 가려는 사람입니다. 차가 없는 마을에서는 이것이 보편적인 방법인 모양입니다.

순하고 맑은 얼굴의 사과장사는 급한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까봐 초조해하는 돈덕과 달리 그는 차가 오면 타고, 자리가 없다면 다음 번 차를 타고 가겠다는 듯 여유롭습니다. 심지어 돈덕이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이 오고, 이어 찰로 만든 페이퍼를 팔기 위해 팀부로 가는 모녀까지 가세해서 모두 다섯 사람이 차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얻어 타려고 길가에 앉아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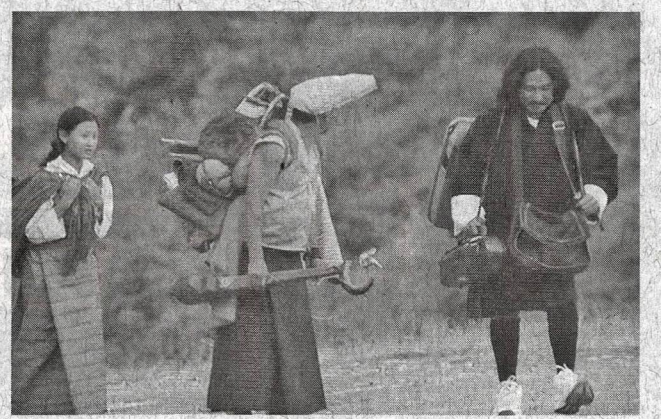
데 차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대의 차가 지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영화는 이들이 팀부로 가는 차를 기다리는 2박3일 동안의 여정입니다. 이들은 길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차를 기다리면서 불을 피워 음식도 만들어 먹고, 스님한테서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과는 열려 팔지 않으면 썩을 수 있고, 페이퍼도 축제에 맞춰 팔아야 하는데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를 기다리는 현재를 느긋하게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정신적인 평화를 잃는 모습은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한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부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교통, 이 현상만 보면 주인공들이 많이 괴로울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부족은 오히려 정신적 풍요를 만들었습니다. 차를 기다리면서 아울러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불편한 교통이 축복처럼 여겨졌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반비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듯 감독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적게 갖는 것이 오히려 풍요롭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을 추앙하던 주인공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실험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물든 돈덕을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끼워진 이야기는 우리나라 조선실화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환상이라는 설정을 통해 욕망



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유혹 좋아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술사는 동생이 건넨 물을 마시고는 환상을 봅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었는데 늙은 남자와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사는 오두막을 발견하고, 거기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차 마술사는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늙은 남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획은 실패했고, 마술사는 도망을 치다가 사랑하는 여인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환상에서 깨어나면서 깜짝 놀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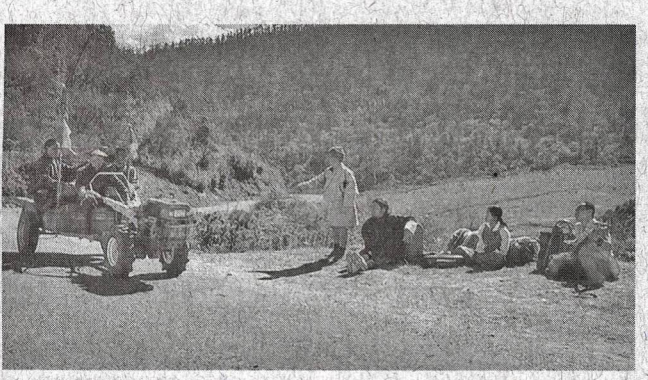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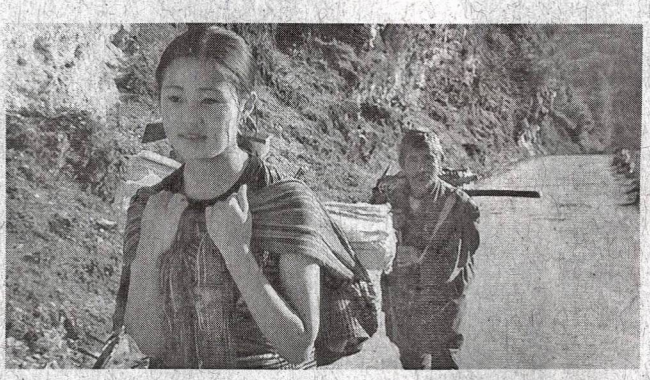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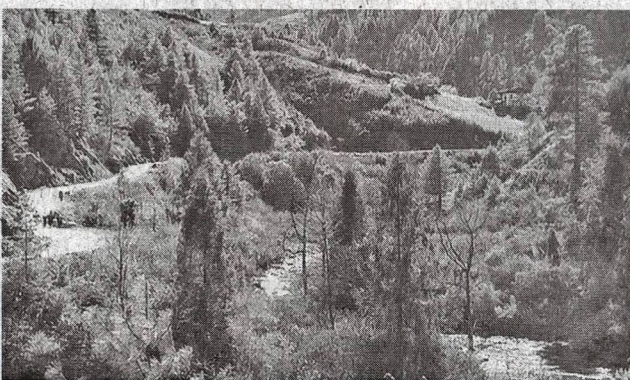
비록 환상이긴 하지만 사람까지 죽이고자 했던 자신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욕망의 위험성을 마침내 깨달으면서 다시 근면성실한 마술사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돈덕의 이야기가 현실을 바탕으로 욕망을 은근하게 표현했다면 마술사 이야기는 욕망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이 들려준 마술사 이야기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돈덕은 찰 페이퍼를 팔러 떠나는 소녀에게 반해서 점차 미국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착한 소녀가 자기 마을에 사는데 굳이 미국으로 갈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지요. 그가 미국에 가려던 애초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구태어 가지 않아도 자기 마을에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행을 포기합니다.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욕망을 버리면 행복이라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눈이 가려 그 파랑새를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좀 뻔한 결론이지만 진리는 원래 흔하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스님 감독이 만든 부탄 영화가 좋은 이유는, 욕망만 잘 다스리면 사는 게 쉽지,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단순하고 간단하게 여겨지게 하는 게 좋았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람을 만난 것도 좋았습니다. 너무 착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할 정도로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음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힐링에 도움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김은주 (자유기고가)



삼보전에 귀의합니다_0_

(주) 주원항공여행사는 13년 전통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해외여행 전문업체로서 불교성지순례 전문, 공무원해외연수, 공기업 및 일반기업 시찰, 패키지여행, 기획여행, 항공권 발권 및 전세계 비자수속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성지순례 및 기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주원항공여행사"를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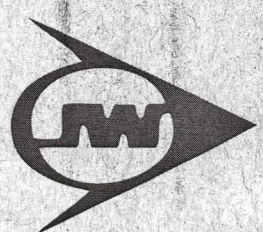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 주요업무 안내 - [예약문의 : TEL (02)733-2999]

- ▶ 전세계 불교성지순례행사
- ▶ 공무원해외연수 및 공공기관 해외연수
- ▶ 기업체 및 일반 해외여행
- ▶ 친목단체 맞춤형 기획 해외여행
-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업무
- ▶ 전세계 비자수속 대행 업무

● 담당자 안내

- ▶ 대표이사 김인수 (H. 010-3218-5474)
- ▶ 불교담당 총괄이사 (H. 010-8443-9001)



(주) 주원항공여행사
JUWON TRAVEL AGENCY

TEL:(02)733-2999 / FAX:(02)733-2998 / 홈페이지 : http://juwontour.co.kr / E-mail : juwon2999@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4-1 삼송빌딩 8층

공연문의. 02)552-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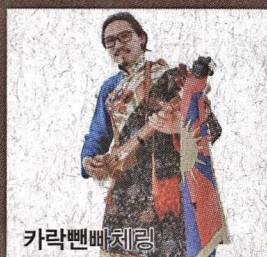
제4회 **동일 음악**
예술제

마음의 소리, 치유의 음악,
평화의 노래

2014. **10. 25.** (토) 오후 2시
부산 KBS 홀

국제명상음악가 초청

아모르라다 & 바나이나가오(대만), 레민홍(베트남), 팡려영(중국), 카락뽀빠체링(티벳), 최경실, 아비오, 충지종연합창단, 위드오케스트라



주최·주관  **불교충지중**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BBS 불교방송  우리은행  삼우개발(주)